



한글아나운서클럽회보

2021년 9월 15일

제 43 호

· 발행인 : 박찬숙 · 편집장 : 김성길
· 편집위원 : 채영신 이현우 황인우 권혁화 유지현 유영미

발행처 사단법인 한글아나운서클럽 06544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270, 119-1102 E-mail annaclub7@naver.com ☎ 010-9025-4663

코로나 시대... 회원들의 저술과 학문적 성과는 늘어나



저자 : 전영우 고문 박찬숙 회장 이종태 회원 강성곤 아나운서 문지애 회원 손미나 회원

전문 도서와 소설·수필 등 다양한 분야의 출간 릴레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이어지면서 대면 모임이 어려워졌지만 회원들의 출간은 늘어나고 있다. 전영우 고문이 64번째 저서 『스피치 아트 우리말 화법』을 펴냈고, 박찬숙 회장이 장편 소설 『가지꽃』, 이종태 회원이 수필집 『어리비기』를 출간했다.

『스피치 아트 우리말 화법』은 60년 넘게 ‘스피치’ 외길 인생을 걸어온 전영우 고문이 그간의 연구와 각계각층의 초청으로 출강할 때 활용한 스피치 강의안을 새로운 관점에서 요약 정리해 출간한 것이다. 이 책은 스피치 연구자는 물론 회원들이 방송 언어 관련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보인다.

『가지꽃』은 1919년 3·1운동 즈음부터 해방 이후까지 이야기를 여러 인물의 삶을 통해 담담하게 서술한 장편 소설이다. 저자 박찬숙 회장은 그 시대 여성의 고단함을 보여주는 주인공 ‘이순’의 삶을 통해, ‘부부는 무엇이고, 모성은 무엇이며, 사랑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다. 또한 시대의 변곡점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 생각과 순응, 얽혀있는 일상의 관계를 통해 시대적 키워드를 감동적으로 전해주고 있다.

『어리비기』는 이종태 회원의 고향 경북 상주와 아나운서 이야기를 풀어 놓은 수필집이다. ‘어리비기’는 저자의 고향 뒷산 이름이면서, 말이나 행동이 다부지지 못하고 어리석음을 낮잡아 이르는 ‘어리비기’의 경상도 방언이기도 하다.

또한 강성곤 아나운서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1인칭 화법으로 옮긴 『올 어바웃 아나운서』를 지난 3월 말에 펴냈다. 작가로 변신한 문지애 회원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니까 - 그림책 수업』을 6월 21일에 출간했으며, 손미나 회원도 『나의 첫 외국어 수업 - 언어적 자유를 위한 100일 프로젝트』를 지난 7월 15일에 출간했다.

커뮤니케이션학·언론학 박사 학위 취득



유지현 박사

윤지영 박사

자신의 경험과 학문적 이론을 접목시킨 회원들의 박사 학위 논문도 늘어나고 있다. 유지현(전 SBS) 편집위원이 8월 25일 광운대 대학원에서 「이문화 적응 예측 모델」 연구로 커뮤니케이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글로벌 시대에 다양한 개인적·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들과 현지 사회가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 그 방향과 실천 모델을 커뮤니케이션 측면의 접근으로 제시한 논문이다.

또한 윤지영(전 SBS) 회원은 8월 20일 중앙대 대학원에서 「TV 뉴스 앵커의 특성이 뉴스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언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기존의 앵커 이미지 중심 연구와 차별화해, 앵커에 대한 평판과 스토리가 뉴스 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한 논문이다.

제48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 거행

아나운서상 KBS 최원정 내레이션상 이금희



제48회 한국방송대상 영예의 대상은 포항MBC 다큐멘터리 <그 쇠물 쓰지 마라>가 차지했고, 아나운서상은 KBS의 <역사저널, 그날> 등을 진행하는 최원정 아나운서가, 내레이션상은 EBS의 <한국기행> 내레이터 이금희 회원이 각각 수상했다. 작품상은 부문별로 총 20편이 선정되었고, 개인상은 시청자 온라인 투표와 공정한 심사를 통해 28명이 최종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방송협회가 주최한 방송대상 시상식은 9월 3일 일산 MBC 드림센터에서 무관중 비대면으로 거행되어, 9월 10일 오후 2시 55분부터 MBC를 통해 녹화 방송되었다.

한편 한국방송협회는 범국민적 코로나19 극복 운동에 동참하는 취지로 9월 2일에 개최 예정이던 ‘제58회 방송의 날 축하연’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축하연과 함께 열릴 예정이던 한글아나운서클럽 9월 정례 모임도 연기되었다. 박찬숙 회장은 “10월 이후 반갑게 볼 날을 기대하며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라고 아쉬운 마음을 표했다.

수상 소감 2면

전국 꽃매달 가능 전화: 032-561-4429 / 팩스: 050-4063-1237 / 휴대전화: 010-4746-1237

아버지를 위하여 사랑의 꽃을 파는 곳 수미플라워



김승한 아나운서

‘수미플라워’ 꽃가게의 주인은 김승한 아나운서의 효성스런 따님 김수미입니다. 김수미의 남편은 효서(孝婿) 이택상입니다. 몇 해 전, 아나운서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는 치매 노인이 되었습니다. 김수미 이택상 부부는 자신들도 이미 흰머리 초로(初老)인데 투병 중인 부모님을 간병하고 봉양하기 위하여 사랑의 꽃가게를 열어놓고 꽃을 팔고 있습니다. 기쁜일 슬픈일로 혹시 꽃이 필요하실 때면 기왕에 ‘수미플라워’에 전화해보세요. 꽃도 사시고 아름다운 선후배 사랑을 전할 수도 있을 겁니다.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선후배님들이 많으실 텐데, ‘수미플라워’만 소개해서 참으로 죄송스럽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 광고 협찬 이계진

제58회 방송의 날에 생각한다

'아무 말 대잔치'



이계진 수석부회장

- 1973년 KBS 1기 입사
- 제17, 18대 국회의원
- 저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촌일기」, 「술베이지의 노래」, 「똥꼬 할아버지와 장미」 등

한때 '아무 말 대잔치'라는 코미디가 인기였다. 그 전통과 맥을 내가 이어 글을 쓰고자 한다. 강요에 가까운 원고 청탁이었으니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뭐라 안 할듯하다.

■ 웃긴다. 올해도 한글날이면 무자격 방송인들은 우리 한글이 망가졌다고 개탄(개그적 탄식)할 것이다. '한글'이 망가진 게 아니라, '우리말'이 망가졌겠지!

■ 우습다. TV에서 보청기 광고를 하는데 그 보청기를 사서 끼면 말(馬)소리가 또렷이 들린다며 모델이 활짝 웃는다. 애마를 잃어버린 마주馬主人가 보다. *요즘 우스개, '나 때는 말이야...'의 영역英譯이라는 'Latte is horse-'에서, '나 때'가 말(馬)이라고? '나 때'는 긴 발음으로 '말(言)이야'겠지.....

■ 훈민정음 서문에 보면 '놈'은 결코 욕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따위 어법은 어느 '놈'이 처음 시작했는지 한심하다. '하지 마세요.'가 '하지 마요.'로 굳어진 지 13년은 된 것 같다.

■ 이젠 또 어떤 '놈'이 시작했는지 어처구니가 없다. '조심히하세요.'가 '조심히 가세요.'로 바뀐 지도 12년쯤 된 것 같다.

■ 환장할 일이다. 유명세稅가 요즘은 유명세勢로 둔갑한 듯 말한다. 방송하는 사람들이 거의 '아무 개가 유명세를 타고 있다.'고 말하던데, 재주도

좋지 아무리 유명인이지만 세금稅金을 어떻게 올라타는가? 이젠 순전히 한자漢字 교육 부재의 부작용일 것이다. *유명세有名稅유:명세: 인기인 등이 감내해야 하는 각종 부담 (~가 따르다, ~를 치르다 *편집자 주)

■ 꽤 오래전에, 길땀만 잔뜩 든 어떤 앵커맨이 처음 퍼뜨렸는데, 방송 사고를 저질러 놓고는 고개를 숙이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지 않고 어쭙, 고개를 바짝 쳐들고 지(제)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를 펴 자주 하더니 이제는 굳어져서 여러 방송인의 지병이 된 느낌이다.

■ 웃기는 정치인들도 한 몫 킨다. 섭섭한 느낌의 유감遺憾이거나, 느낀 바가 있다는 유감有感 중에 뭘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분란을 일으킨 가해자가 한참 버티다가는 유감을 표명하고 나면 그 게 '사과의 뜻'이란 다. 바른 표현을 예로 들면 '내게 욕을 하다니 유감입니다' 이렇게 피해자 측에서 하는 말이 아닌가.

■ 분명코 입사 시험은 통과했을 텐데, '20여 만 명과 '20만여' 명을 전혀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말이지만 방송인은 최소 '초등학교'는 나와야 한다.

■ 연예인 등의 방송 언어 문제는 너무나 많아서 지면을 아끼기 위해 정말로 꼭꼭 잡겠다.

■ 해괴한 말이 나왔다. 디지털 세대의 어법인지, '아주 좋아'를 '완전 좋아'로 말하는데, 벌써 어린이들이 배워서 활발하게 쓰고 있다. 완전? 그러면 '불완전 좋아'도 가능할까? 그 사람들 '완전 바보' 아냐?

■ 초능력자들이 있다. 동사動詞인 '가다'는 명령형으로 '가세요'가 가능하지만, 형용사를 명령형으로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도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라고 한다. 명령대로 행복하고 건강해 지면 좋긴 하겠는데, ○○하시기 바랍니다'가 좋지 않을까?

■ 참깨 기름은 '참기름' 들깨 기름은 '들기름' 이라고 '초등학교' 때 배웠다. 그런데 요즘은 아나운서들조차 들깨 기름을 '들기름'이라고 발음한다. 왜들 그러지? 중국산 들깨로 짜서 그런가? 이해불가理解不可하다.

■ 방송 매체인 KBS-TV '우리말 겨루기'는 '말'을 수단으로 하는 매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어법이나 발음 법칙 문제를 내서 겨루면 좋겠는데, 어쨌서 그런 문제는 잘 안 내고 철자법과 띄어쓰기 문제를 내서 출연자들에게 골탕을 먹일까? 요즘은 화면에 자막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아예 TV를 활자 매체로 분류하는 건가?

■ 의아하다. 가끔 우리말에 대한 칼럼을 써달라는 대외 집필의 기회를 잡은 유명 아나운서들의 글을 보면 거의 하나같이 발음법(특히 무너지는 장단 문제) 등은 멀리하고, 어쨌자고 유식해 보이거나 현학적學術的인 소재의 글만 냅다 쓰는지 모르겠다. *현학적學術的: 학문적 '자기 과시' 라는 뜻.

■ 이 또한 마음 아프다. 텔런트 김미숙 씨는 아름답고 품위 있는 말씨와 발음으로 라디오 방송을 한다. 나도 애청한다. 그래서 가끔 지인들이 '김미숙 씨는 종편 TV에서 수다 떠는 아나운서 출신들보다 더 아나운서 같아요' 할 때, 숨고 싶은 심정이다. *참 부끄럽게도 종편 TV에 나온 그들을 보고 '뭘 아나운서가 저래'라고 혀를 찬 사람도 있다고 함. ㅠㅠ

■ 그래서 아나운서만큼은 이제라도 인물 위주로 뽑지 말고, 필기시험 점수와 소리와 발음과 교양, 그리고 기왕이면 인물 점수를 얹어 뽑았으면 좋겠다.

■ 마이크 앞을 떠나 있으니 좋은 점도 있다. 이런 글을 써도 '너나 잘하셔' 소리 듣지 않아서 참 좋다.

*저의 주장이 다 맞지 않을 텐데도 인내하며 읽고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방송대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아나운서상

KBS <역사저널, 그날> 진행



최원정(KBS)

"2000년 입사 이래 지금껏 막연히 방송 활동 많이 하시는 선배님들이 타는, 그래서 저와는 거리가 먼 상인 줄만 알았는데 트로피를 손에 거머쥐는 순간 평생 느껴보지 못한 울컥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운이 좋아서 좋은 프래그그램들을 두루 진행한 것도 있지만 한가지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점은 주어진 방송을 참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워라벨(Work-life balance) 대신 워라블(Work-life blending, 일과 삶의 조화 - *편집자 주)이 주목받고 있는데, 방송은 지금까지의 제 삶에서 가장 재미있고 가치 있는 일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덕업일치(열성적으로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음 - *편집자 주)의 마음으로 즐기고 싶습니다. 아나운서 선배님들께서 지지하고 응원해주신 덕분에 받을 수 있는 상입니다. 더욱 겸손하고 성실하게 아나운서 생활에 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레이션상

EBS <한국기행> 해설



이금희(전 KBS)

"동틀 녘부터 땅거미 질 때까지, 높은 산부터 깊은 바닷속까지 촬영하고 편집하고 다듬어서 써 내리간 서른 명 남짓 <한국기행> 제작진을 대신해 받는 상이라 여깁니다.

또 3천 회가 넘도록 저녁마다 봐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3천 회가 넘도록 출연해 주신 여러분 덕분이지요.

코로나19로 인한 상상 못할 어려움 속에서도 상상 초월의 인내심으로 버텨내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힘을 내주세요.

끝으로 오래 쓸 수 있는 목소리를 주신 부모님께 감사 인사 전합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Zoom-in KBS 한국어연구부 윤인구 부장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고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의 말하기 능력 저하를 걱정하던 차였다.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는 KBS 아나운서(실장 이형걸)들이 좋은 목소리로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낭독해 수업에 활용한다니 희소식이 아닌가. 주관 부서인 한국어연구부 윤인구 부장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한동안 감감무소식이었다. 알고 보니 경남 통영에서 열린 '섬의 날' 행사로 출장 가서 휴가도 보내고 왔단다. 지난 2년간 한국어연구부장을 맡아 어느 때보다 일복이 많았던 윤인구 부장과 8월 19일 오후 KBS 본관 아나운서교육장에서 만나 그 특별한 사업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글 / 황인우(전 KBS) 편집위원

• 취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 간 학습 격차가 커짐은 물론 바른 소통법과 언어 예절을 배울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 이에 KBS 한국어연구회가 주축이 되어 우리말을 지키고 가꾸는 공적 책무를 수행하고자 작년에 인력과 자원, 시설을 무상 제공하는 공익 오디오북 사업을 구상한 바 있다. 2005년 8월에 이규향 선배님이 교회사와 초등학교 국어과 읽기 교과서 발음 자료집 10권을 제작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원천 아이디어이다. 초등학교 때 언어 습관이 형성되는데, 학생들의 언어 능력 향상과 올바른 우리말 사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하리라 생각한다.

• 제작 과정

MOU를 체결하자마자 50여 명의 아나운서를 비롯해 라디오센터 사회공헌방송부 PD 10명이 힘을 모아 라디오 기술국 스튜디오에서 녹음 작업에 들어갔다. 7월 안으로 2학기 교과서가 배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5월까지 녹음 완료 후 6월 중 1차 한국어연구회, 2차 편찬진 감수를 거쳤다. 우수한 인력과 제작 시스템을 활용해 방송 못지않은 수준의 학습 자료로 만들었으니, 제작비를 따진다면 역대 비용을 무상 제공한 셈이다. 그날 제작 현장을 방문해 녹음 과정을 지켜본 유은혜 부총리는 “듣는데, 바로 몰입이 되더라, 시간 내서 정성껏 읽어주는 따뜻함이 학생들에게 전달 될 것 같다”라며 기뻐했다.

• 활용 계획

2학기부터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교사용 해설서에 녹음 자료 USB도 동시 지급된다. 여건이 허락되면 오디오북을 별도로 제작하거나 교과서 인쇄 시 QR코드를 병기해 바로 들을 수 있도록 제작하면 좋을 것이다. 언어 습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소중한 길라잡이가 되길 바라며, 나아가 다문화, 장애 아동 등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낭독 자료 제작에도 관심을 기울일 생각이다.

• KBS 한국어연구회

KBS 아나운서실에서 방송 언어 순화와 고품격 한국어 확산을 위해 1983년 4월 23일 창설,

초등국어 교과서 낭독, 'KBS 아나운서' 라서 가능한 공적 책무

• 추진 과정

그런데 저작권 문제가 여의치 않아 교육부에 제안하고 올해 2월부터 교육부 청사가 위치한 세종시를 오가며 행정 담당자, 편찬진 등과 설득 작업에 나섰다. 초등 국어 1~6학년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작품, 설명문, 논설문, 대화 등을 학년별 특성에 맞게 낭독해야 하는데, 전국 방송국 중 한국어 관련 공식 조직을 갖춘 건 KBS가 유일하지 않은가? 'KBS 아나운서라서, KBS 아나운서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해, 5월 10일 오후 2시에 교육부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 에피소드

녹음 작업에 앞서 복수 발음, 장단음-자고저 적용 등에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낭독 지침서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 맛있다는 [마디따]와 [마시따]로 복수 발음이 허용되는데 [마시따]로 통일하고, 장단음도 너무 강조하지 않는 식으로 시류를 따랐다. 다시 초등학생 시절로 돌아간 듯 즐겁게, 그러나 학부모의 심정으로 성실히 임한 아나운서들은 '글자 그대로 읽는 게 쉽지 않더라, 이를 통해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공동 작업을 하며 동료애를 느끼게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1986년에 정규 부서로 꾸러졌다. 그동안 방송 언어 교육, 한국어 상담 전화 운영, <KBS 아나운서가 전하는 바른 우리말 사용 설명서> 등 출간, 한국어 포스터 제작 배포, <안녕, 우리말> 프로그램 기획 제작, 2010년부터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배님> 사업을 펼치며 1990년과 2014년 세종문화상, 2020년 외솔상 수상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인정을 받아왔다. 앞으로 한국어 센터로 외형을 더 키워 심화된 한국어 연구와 뉴미디어에 맞는 한국어 콘텐츠 개발에 나설 것이다.

| 알림 |

고맙습니다

연회비

(6월 11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금순)

전옥수, 이정애, 윤지영, 박용호, 윤성원, 김윤희, 송재익, 김성용, 이소연, 전미리, 손석기

발전기금

광고 협찬

광고 유치



손석기 부회장
30만 원



이계진 수석부회장
수미틀라워 150만 원



문무일 (전 MBC)
퍼시픽호텔 300만 원



연회비와 발전기금은 클럽에 대한 관심과 사랑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9월 30일 KBS 정년퇴직 예정
김정윤 8월 31일 영동 FEBC 퇴사
최동석 8월 24일 KBS 퇴사
이윤재 6월 30일 MBC 정년퇴직
김수민 6월 30일 SBS 퇴사
김이숙 3월 31일 KBS 정년퇴직

조의를 표합니다

서동숙 (전 KBS) 9월 8일 부친상
정혜실 (전 KBS) 7월 22일 모친상
김희수 (KBS) 7월 2일 부친상
김관동 (전 KBS) 6월 24일 부친상

KEB하나은행 358-910003-70805 (사) 한국어아나운서클럽 연회비 10만 원

아나운서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소연 (전 KBS)



1975년 공채 3기 아나운서로 입사해 KBS 대전방송 총국에 근무한 뒤, 1979년 결혼과

함께 퇴직했다.

이후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여성백과> <KBS FM 희망음악> <통일열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현재는 KBS 한민족 방송의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진행하고 있다. 고성균 회원(전 KBS)이 남편이다.

전미리 (전 MBC)



1963년 부산MBC 공채 2기 아나운서로 입사했다. 대구 MBC, MBC 본사 등에서 근무한 뒤

1969년 미국 뉴욕 뉴저지로 이민해 52년째 같은 곳에 거주하고 있다. 1972년부터 79년까지 한미 문화 방송을 운영하면서 카네기홀에서 어린이 음악 경연대회를 해마다 개최했고, 함흥 철수 피난민 구출에 공로가 많은 'Edward almond' 중장과 인터뷰 방송을 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회 | 원 | 동 | 정

박찬숙 회장, 방송의 날 기획 <방송 50년, 박찬숙 앵커는 말한다> 출연



9월 4일 저녁 7시 KBS 제1라디오 방송의 날 기획 <방송 50년, 박찬숙 앵커는 말한다 (사회, 태의경)>에 출연해, 1968년 3월 국영 KBS 공채 1기로 입사한 이래 2017년 12월까지 50년 동안 우리나라 첫 여성 앵커로서 경험담과 가치관, 인상적인 기억들을 나누며 방송 역사를 되돌아봤다. 특히 1994년부터 10여 년간 진행했던 KBS 제1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박찬숙입니다>에 당시 대통령 영부인, 국회의장,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저명인사들이 출연해 '연일 뉴스와 화제를 쏟아내는 등 타 언론, 기관의 취재원이 됐다'고

회고했다. 또한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식 중계'와 '1990년 남북 고위급 회담' 등 역사적 순간의 녹음 자료를 다시 들으며 갖가지 일화를 소개했고, 1994년 7월에 진행했던 <라디오 정보센터> 프로그램의 당시 오프닝 멘트 기록수첩을 보면서 오프닝을 재현하기도 했다. 'IMF 시절, 국민에게 희망을 준 박세리와 박찬호, 그리고 박찬숙이 있다' 라고 코멘트 할 만큼 방송인으로서 자부심이 강했던 박찬숙 회장은 후배 방송인들에게 '많이 생각하라'는 당부와 함께 프랑크 시나트라 의 'My Way' 를 들으며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

방송 3사 출신 아나운서들, KBS <우리말 겨루기>에 출연



한상권·정다운(KBS), 조우종·최송현(전 KBS), 이재용·김완태(전 MBC), 윤영미·김일중(전 SBS) 아나운서가 8월 16일 KBS 1TV <우리말 겨루기> 아나운서 특집에 2인 1조로 출연했다. 현역인 한상권, 정다운 아나운서가 우승하며 우리말 실력을 과시했다.

이금희 (전 KBS)



9월 12일 오후 4시, 보령문화의 전당 대강당에서 '코로나 시대, 일상에서 행복찾기'를 주제로 강연했다. 현장 강연엔 60명 이내의 예약자가 참석했고, 보령시 유튜브에서 방송했다. 한편 이 회원은 오는 9월 30일 오전 11시에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열리는 국립국악관현악단 '정오의 음악회' MC로도 활약할 예정이다.

박은영 (전 KBS)



스마트박물관을 추구하는 이화여대박물관 홍보대사로 6월 24일 위촉되었다. 박 회원은 이화여대 무용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미술사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김병래 (전 KBS)



문학도시 9월 호 이달의 작가로 선정되었다. 김병래 회원은 부산문인협회와 부산시인협회 회원으로 수필집 『아나운서와 술』, 시집 『내가 사랑하는 세 여인』 등을 펴낸 바 있다.

이종태 (전 KBS)



7월 8일 공주시가 송산리 고분군 일원에서 개최한 무령왕릉 발굴 50주년 기념식 사회를 보았다. 대전에서 고교와 대학교를 다닌 이 회원은 대전방송국 근무를 계기로 1990년부터 공주에서 거주하고 있다.

황수경 (전 KBS)



8월 25일 MBC TV <라디오스타>에 출연했다. 서로 다른 분야에서 인정받은 입담꾼 3인과 함께 첫 출연해 22년 아나운서 생활과 2015년 프리선언 후 근황을 소개했다.

신은경 (전 KBS) 운영위원



6월 22일, 24일 영남일보 CEO 아카데미와 포항 대경일보 리더스 아카데미에서 스피치리더십 강연을 했다. 신은경 회원은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는 차의과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손미나 (전 KBS)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비엔날레) 온라인 토크 사회를 맡아 유현준, 정재승 교수 등과 대담했다.

8월 13일부터 9월 11일까지 금·토요일 격주로 오전 10시 공식 유튜브에서 공개되었다.

배기완 (전 SBS)



다양한 프로그램의 MC와 올림픽캐스터로 활약한 배기완 회원은 2019년 3월 SBS를 퇴직한 후, 2020년 3월부터 JTBC PLUS의 특임 아나운서로서 활동하면서 PGA, LPGA 등 골프 중계와 <THE 메달리스트> (월~금 15:00~16:00) 진행을 맡아 활약 중이다.

김성경 (전 SBS)



현재 진행하고 있는 TV조선 정치 시사 토크쇼 <강적들>이 8월 28일 400회를 맞았다.

2013년 초창기 멤버로 참여한 김성경 아나운서는 2017년부터 단독 진행으로 굵직한 정치 현안에 대한 첨예한 토론을 매끄럽게 진행해 '강적(?)' MC로 인정받고 있다.

전우벽 (전 KBS)



9월 2일 (사)한국차인연합회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전우벽 회원은 2004년 정년 퇴임 후, 17년간 연합회 사무총장으로 총괄 업무를 담당하면서 1,200개 전국 단위 차회를 육성 발전시키고 한국다도茶道대학원을 운영하는 등 우리나라 차 문화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

문무일 (전 MBC)



8월 30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 클럽에서 '건국 73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김학성 교수가 '건국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이희천 교수가 '6.25 전쟁과 사상전'을 발표하며 역경 속에 탄생한 대한민국을 조명했다.

이후재 (전 KBS) 부회장



7월 12일 국제PEN 한국본부(이사장 김용재) 홍보위원장에 선임됐다. 한국본부는 해마다 한국인의 우수한 문학 작품을 골라 스웨덴 노벨문학상 심사위원회에 추천해오고 있으며, 세계한글작가대회도 개최하고 있다.

김병찬 (전 KBS)



고향 청주에서 추진해온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의 착공식을 7월 15일에 거행했다. 이 프로젝트는 지상 49층 규모의 쇼퍼타운(현대아울렛)과 레저 시설, 아파트가 결합된 대형 주상복합물 조성사업으로, 약 6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청주시의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이 건물은 2024년 말 완공 예정이다.



“미주 회원 근황을 소개합니다”



정영호(전 KBS) 미주 편집
위원이 미국 거주 회원들의
소식을 전해왔다.

홍우창 (전 TBC, LA 거주)



“미국 병원과 SKIN CLINIC
전문기관에 병원용 전문
화장품과 스킨
케어 기기 등을 공급하는 ‘DR+LAB
USA’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꾸준히 확장되고 있어 금년 5월에는
로스앤젤레스에 이어 오렌지카운티 부에나
팍 소재 ‘THE SOURCE’ 몰에 직영
쇼룸을 추가로 오픈했습니다.”

강미란 (전 KBS, 시애틀 거주)



“매일 아침 바닷가를
걸으며 코로나19로
우울해진 기분을
털어내고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시애틀이 스타벅스의 원조지만
산책 후 입맛에 맞는 맥도날드의
맥커피를 한 잔 하는 것도 또 다른
즐거움 중의 하나입니다. 앱으로
보는 아나운서클럽회보보다는
페이퍼로 된 회보를 받아 보는
재미를 기대해 봅니다”

정철응 (전 KBS, 뉴욕 거주)



“건강 관리를 겸해
친구들과 골프를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시니어 특별 할인

요금이 있기 때문에 골프 비용을
크게 걱정하지 않고 즐깁니다.
서울에 다녀오고 싶어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가고 있는데
빨리 이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
습니다.”

이승상 (전 KBS/MBC, LA 거주)



“건강을 위해
꾸준히 테니스를
치고 있습니다.
한때 ‘유세비오’
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운동을
즐겼으나 이제는 적절히 조절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대외
활동을 자제하며, 손녀딸들의
재롱과 함께 옛 친구 동료들과
주고받는 카톡이 큰 힘이 됩니다.”

이정원 (전 MBC, LA 거주)



“라디오서울의
‘라디오 콘서트’
(월~금, 오후 3시
~5시) 프로그램과
‘주말 홈쇼핑’ (토, 일 정오~오후
2시) 프로그램을 진행하느라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양가
부모님들이 걱정돼 한국을 방문
하고 싶은데 빨리 코로나19가
끝나 반가운 얼굴들을 볼 수 있었
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확인된 미주 회원은
39명으로 앞으로도 회원들의
근황과 동정을 소개할 예정
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 한바다”

매년 10월 국군의 날이 다가오면 육·해·공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 중계방송이 생각난다.
종목별 결승전이 열리는 대회 마지막날, 성동원두城東原頭 서울 동대문운동장 주변은
3군 사관학교 생도들과 가족 등 2만여 명 관중의 뜨거운 함성으로 떠나갈 듯 했다. 1983년
10월 18일, KBS 1TV에서 방송했던 그 현장에 박병학(러비), 박영웅(축구), 이세진(육상)
아나운서가 나란히 앉아 꽤 긴 침묵의 짧은 축제를 중계방송하고 있다. 지금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으로 바뀐 추억의 ‘서울 동대문운동장’ ... 추억의 사진 속으로 들어가 본다.

사진, 글/ 박영웅 (전 KBS)

우리말 다들기 힘내라, 한국어! ⑬

한국어를 망치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줄임말과 약어



김성준 (전 KBS)
언론학 박사

줄임말은 낱말이나 문장의 길이를 줄이기 위해서
정상적인 표기의 일부를 생략한 말이다. 줄임
말은 준말과, 약어, 혹은 축약어라고도 한다.
그리고 이름을 줄인 것은 약칭이라고 한다.
최근 신문 등 미디어에 등장한 줄임말 몇 개를
살펴본다.

- 1) “의경 과외쌤들이 다문화과정 학생 45명을
대학 보냈다.” <C일보 2021. 8. 7.>
- 2) “놀이하듯 놀방, 술방, 은행 부동산업계도
‘라방’ 한다.” <C일보 2021. 8. 12.>
- 3) “모 당의 대표는 여권이 추진하는 언론
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에 이은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
박탈)이라고 비판했다.” <2021. 8. 26./뉴스1>

1)은 의무경찰 중 과외 교사, 즉 쌤들이 어려운
처지의 학생들을 대학에 합격시켰다는 내용이다.
쌤은 선생님이라는 발음이 어려워져 선생님-
선생님-쌤님-쌤이라는 단계적 오발음의 최종
적인 호칭이다. 2019년 초,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권위주의적 조직문화를 없애겠다면서 선생님을

‘쌤’이나 ‘~프로’ 등으로 호칭하겠다고 발표
했다. 그러자 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교총 등이
‘쌤’이라는 호칭은 ‘교사를 얹잡아보는 호칭’
으로 학교에서 권장할 용어가 아니라고 반발
했다. 이후 교육감은 사제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후퇴했다

2)에서 ‘라방’은 모바일을 중심으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라이브 방송을 말한다. 미용이나
식품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은행, 가전과 게임
등 전방위적으로 생방송이 확산하고 있다는 소
식을 전한 기사이다. 여기서 ‘놀방’은 누워서
하는 방송, ‘술방’은 술 마시는 모습을 방송으로
내보내는 것을 말한다. 술을 마시면서 온라인 즉
‘랜선 건배’ 하는 모습을 담아낸 것이 술방이다.
랜선이란 컴퓨터와 각종 정보 통신 기기를 통
신회선으로 연결하는 선, 즉 LAN(local area
network)선을 말한다.

3) 검수완박은 정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이고, 언자완박은 2021년 8월에 등장한 표현이다.
또한 ‘난감하다’의 어근인 ‘난감’만 사용한 것과

같이 줄임말의 사용도 많은
편이다. 지나친 줄임말이나 약어,
또는 통시 언어는 언어 생활을 어렵게 하고, 한류
와 함께 대폭 늘어나고 있는 세계 속의 한국
어 학도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줄임말이나 약어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참고로 가장 오래 써온 약어를 소개한다. 그동안
연대와 함께 쓰는 기원후라는 말은 라틴어 약어
AD(Anno Domini, 주주의 해年), 기원전은 영어
약어 BC(Before Christ, 예수 이전)를 주로
써왔다. 그러나 최근 종교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AD는 CE(Common Era, 공통시대)로,
BC는 BCE(before Common Era, 공통시대
이전)로 쓰는 경우가 많다.

이 글을 마무리할 무렵, 여당의 미디어혁신
부위원장인 모 의원이 언론중재법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8월 31일 새벽, 국회의장
에게 페이스북을 통해 GSGG라고 불러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그는 성급하고 어리석었다고
사죄했다지만, 이렇게 GSGG와 같은 자들이
한국어를 망치고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도 최선을 다한 스포츠캐스터들



2020 도쿄올림픽과 2020도쿄패럴림픽은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관중 없이 진행된 '역대 가장 조용하고 기묘한' 올림픽이었다. 국내 방송사들도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오프티브 형식으로 중계했다. 특히

SBS는 스포츠캐스터들을 현지에 파견하지 않고 전 종목을 국내 스튜디오에서 중계방송했다.

스포츠캐스터는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역동적인 장면이나 감동의 드라마를 순간적으로 각색해 던지는 언어의 반주자이다. 그 각색에는 감성(현장 묘사)과 이성(경험과 취재)이 조화롭게 작동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도쿄올림픽 스포츠캐스터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현지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 관중 없는 텅빈 스탠드, 선수 취재의 제한, 국내 스튜디오에서 간접 중계 등 감성과 이성을 제대로 발휘시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실황 중계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 3사 올림픽캐스터(KBS 15명, MBC 10명, SBS 8명)들은 1948년 런던올림픽 민재호 아나운서로부터 시작된 올림픽 중계의 역사를 멋지게 써내려 갔다. '저널리즘'과 '내셔널리즘'의 조화, '개인의 성취와 과정의 즐거움'에 주목하는 시대 흐름을 적절하게 녹여낸 도쿄올림픽캐스터들... 그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클럽에 보내온 올림픽 리포트를 요약 정리했다.

"꿈의 무대에서 내려와 또 다른 꿈을 꾸니다"
- KBS 이광용



올림픽 현장 중계석은 스포츠 중계방송을 하는 아나운서라면 누구나 꿈꾸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번 도쿄올림픽을 앞두고는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설렘과 기대로 가득해야 할 올림픽 현지 출장,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을 받는 가운데 올림픽을 치르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이 상황에서 목이 터져라 응원하며 중계방송을 하는 것이 맞는 지 계속 의심이 들었습니다.

걱정과 의문이 가득한 마음으로 도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출국 전 2번의 코로나 검사에 이어 나리타 공항에서도 반복된 코로나 검사와 입국까지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 그리고 2주간 숙소와 IBC만을 오가는 사실상의 감금 생활. 답답함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올림픽 방송 준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올림픽캐스터들은 열과 성을 다해, 스포츠이벤트의 명품 올림픽실황을 최상의 스포츠콘텐츠로 만들어 갔습니다.

양궁장을 찌렁찌렁 울리게 했던 김제덕 선수의 파이팅 소리, 메달과는 상관없이 한국 수영의 미래를 밝혀준 황선우 선수의 멋진 레이스, 김연경 선수를 중심으로 또 한번 4강 진출의 기적을 만든 여자 배구 대표팀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또 높이뛰기 결선에 진출해 한국신 기록의 환희를 우리에게 선물하고, 마지막 바를 넘지 못했음에도 그저 밝았던 우상혁 선수의 환한 미소도 생각합니다.

꿈의 무대에서 내려온 선수들은 잠시 심호흡을 한 후 곧 다른 꿈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저 역시 이번 올림픽에서 경험하고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다음 무대를 꿈꿔 봅니다. 3년 후 파리올림픽에서는 우리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서로의 환한 얼굴을 보며 힘껏 소리치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다시 관중으로 가득찬 현장 중계석에서 목이 터져라 우리 선수들의 활약을 전해드리는 제 모습도 그려 봅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 꿈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올림은 계속될 것입니다"
-MBC 김나진

출국을 며칠 앞두고도 희망이나 기대감보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앞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착륙 후 공항을 빠져나오는데 4시간 가량이 걸렸고, 4일 연속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제가 오갈 수 있는 곳은 단 세 곳, 숙소와 IBC, 경기장뿐이었습니다. 경기장에 방문하는 것도 별도의 패스가 요구됐기에 해설위원과 제가 경기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발을 돌려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한적이었고 통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의문투성이였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제대로 된 중계방송을 할 수 있을까.'

다른 모든 건 제약이 있어도 우리가 잡고 있는 마이크는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나운서인 제가 해야 하는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 한 가지로 모든 것을 집중하며 나아가 수 있습니다. '고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이라는 인사가 전해지던 시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선배 아나운서들은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늘 당당함과 넘치는 기백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던 선수들처럼 우리 아나운서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선수들은 언제나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며 나아가는데 우리 아나운서들이 조금 힘들다고 움츠러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 마음 하나가 자리 잡으니 이후엔 쉬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과거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또 나아가 수 있을 겁니다.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마이크에는 올림이 있으며, 그 올림은 전염병 따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뻗어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짧은 글을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 우리 아나운서들의 과거 소리와 오늘의 소리, 앞으로 들릴 소리들이 겹쳐 들리는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아마도 그건 우리 아나운서들이 또 한 번 해냈고, 잘 걸어가고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올림픽 방송... 그동안 고맙습니다."
-SBS 김정일



제 생애 아홉 번째 참가하는 2020 도쿄올림픽이 이상하게 개최되었습니다. 중계방송단을 보내지 않고 소수의 취재진을 현지에 파견한다는 회사 방침이 정해졌고 경기 중계는 본사 스튜디오에서 'OFF-TUBE'로 한다는 결정이 났습니다.

과거에 월드컵이나 올림픽의 일부 경기를 위성으로 받아 서울에서 중계한 적은 있었지만 올림픽 전체 일정을 한국에서 소화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나마 시차가 없는 나라에서 대회가 열려 다행스러웠습니다.

그 와중에 어떤 사원은 올림픽 분위기가 안 난다고 투덜거렸고 또 누구는 "예산이 훨씬 절감되지 않겠냐?"며 애사심 넘치는 발언을 했습니다. 목동 사옥 안에 멋진 스튜디오들이 만들어지고 시간은 어김없이 다가와 올림픽이 시작됐습니다. 때마다 배달되는 맛있는 도시락도 멋진 단복도 예전과 다름없었지만 도쿄올림픽이라는 이름 아래 펼쳐진 저의 일터는 도쿄가 아닌 서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리고 젊은 선수들이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분전하는 모습은 신선함을 넘어 큰 기쁨으로 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대회 폐회 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할 일을 다 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마라톤 중계가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안식년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마지막 중계가 될지도 모르는 종목이 하필 올림픽 일정 마지막 날 열리는 경기라니... 재미있었습니다. 방송 전날 자료를 준비하다가 지난 30여 년에 가까운 기간, 제가 중계한 종목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축구, 야구, 육상, 유도, 복싱, 검도, 레슬링, 유도, 승마, 수영, 배드민턴, 요트... 서른 개 종목이 훌쩍 넘었습니다.

색다른 모습으로 치러지고 그 상황에 적응할 수 밖에 없었던 우리들 모두에게 이번 올림픽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마라톤 중계를 마치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고맙습니다.



방 | 송 | 가 | 소 | 식

KBS 올림픽의 감동을 이어간 도쿄패럴림픽 중계



15명의 올림픽캐스터가 활약하며 명품 중계방송을 이어갔던 KBS가 2020 도쿄 패럴림픽에도 9명의 패럴림픽캐스터를 투입해 역대 최대 편성인 2,045분 분량의 중계방송을 완수했다. 특히 과거 1명의 캐스터가 하이라이트 중심의 전 중목을 중계방송했던 방식에서 탈피해, 종목별 캐스터가 특화된 해설자와 함께 경기 규칙과 장애 등급을 알기 쉽게 설명하며 전문성을 높이는 등 시청자 기대에 부응했다. KBS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중계제작팀을 일본 도쿄 현지에 파견해 생동감 있는 영상을 보내왔고, <KBS 뉴스 9>에서도 대회 기간 내내 장애인 앵커가 패럴림픽 관련 뉴스를 전했다.

SBS 신입 경력 아나운서 채용



김다영 아나운서



김가현 아나운서

2021년 SBS 신입 경력 아나운서로 김다영, 김가현 아나운서가 선발됐다. 김다영 아나운서는 부산 MBC에서, 김가현 아나운서는 KBSN에서 방송을 한 바 있다. SBS에 합류한 두 아나운서는 프로그램 견학과 교육을 받고 있다.

CBS 이지민 아나운서, <생명돌봄운동캠프> 활동



이지민 아나운서가 유튜브 채널 '아나운서 엄마의 육아 연구소'를 운영한 것을 계기로, 최근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해 발족한 '생명돌봄운동캠프' 팀에 함께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JTBC 백다혜·김하은 아나운서, 청소년 미디어 특강 참여



JTBC 아나운서팀은 2017년부터 시청자미디어재단과의 업무협약에 따른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나운서 직업과 업무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두 아나운서는 지난 5월부터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함께 콘텐츠를 준비해 2학기부터 서울시 초·중고 학생들에게 온라인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OBS 유진영 아나운서 '문학산 음악회' 진행



유진영 아나운서가 9월 4일, 인천 문학산 정상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제6회 문학산 음악회' 사회를 맡아 매끄러운 진행 능력을 발휘했다. 201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문학산 음악회'에는 소프라노 이애름, 뮤지컬 배우 카이와 김소향, 팬텀싱어 3회 우승자인 라포엠 등이 공연했으며, 인천시와 OBS 유튜브로 라이브 중계했다.

MBC 아나운서국 <훈민정음 해례본 NFT> 제작



MBC 아나운서들이 훈민정음 해례본 NFT 관련 사업에 참여한다. 한글과 4차 산업을 다양한 모습으로 조명해 보는 '한글날 특집 다큐멘터리' <말의 미래> 제작에 참여해, 희소성을 가진 디지털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를 직접 제작한다. 아나운서들이 영상을 촬영하고 훈민정음을 낭독해 NFT로 만든 후 경매로 판매하고, 그 수익금은 기부한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로, 소유권과 거래 이력 등 고유타를 부여한 디지털 자산이다.

TBS 뉴스 프로그램 개편으로 <TBS7> 새롭게 선보여



TBS가 TV 뉴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저녁 뉴스 <TBS7>을 선보였다. 생활 밀착형 정보를 소개하는 '민생톡'과 수도권 도시 문제를 현장의 시선으로 알아보는 '시티톡' 등 다양한 심층 코너가 마련됐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정보를 살펴보는 '우리동네 다시보기' 등 수도권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다.

cpbc 김슬애 아나운서, 신앙 수기 공모전 수상



7월 25일, 2021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신앙 수기 공모전에서 김슬애 아나운서가 희망상을 수상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를 주제로 조부모님께 물려받은 신앙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내 신앙 유산의 실천적 모델이 되었다는 평이다.



febc 6.25 참전 한미장병 추모의 벽 건립 모금 생방송



8월 16일 화요일 오전 7시부터 한국전쟁 참전 전몰 한미장병 추모의 벽 건립을 위한 모금 특별 생방송을 진행했다. 미국 워싱턴DC 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들어서는 '추모의 벽'은 한국전쟁 참전 미군 36,595명, 카투사 한국군 전사자 7,174명의 이름과 참전국 수, 부상자 수가 새겨질 예정이다.

극동방송은 8월 23일, 기탁받은 4억 5백만여 원의 성금을 '추모의 벽' 건립 기금으로 활용되도록 한미동맹재단에 전달(사진)했다.

BBS 2021년도 하반기 인사이동



이선희 아나운서

이선희 아나운서가 아나운서 부장으로 임명됐다. 본사 장수연 아나운서 부장이 뉴미디어전략팀장(국장급)으로 승진하면서 장수연 아나운서가 제작하던 <경전으로 여는 하루>는 김민영 아나운서가 1인 제작 형식으로 담당하고 있다.

아름다운 우리말, 함께 알아가요!

- 오달지다** 마음에 흡족하게 흐뭇하다
 - 오랜만에 그녀에게서 온 편지는 오달진 소식이 한가득이었다.
- 울멍지다** 크고 뚜렷한 것들이 두드러지다
 - 가지고 간 그릇에 담아 쌓아 놓고 보니 저희 게 더 울멍지게 보였습니다.

- 갖추갖추** 여럿이 모두 있는 대로
 - 혼수를 갖추갖추 장만해 주시려고 했다.
- 상크름하다** 서늘한 바람기가 있어 좀 신선하다
 - 요즘은 날씨가 상크름해서 좋아요.

정리 / 이현우 편집위원

PACIFIC HOTEL
SEOUL, KOREA



마음이 머무는 곳 신뢰의 퍼시픽호텔

2017 미쉐린 가이드 서울 호텔부문 선정

(미쉐린가이드:100년 전통의 권위있는 세계적인 여행 가이드 잡지)

서울의 중심 명동에 위치한 저희 퍼시픽호텔에는
고객님들을 위한 안락하고 깔끔한 객실과
각종 세미나, 동창회, 가족모임 등 소중한 행사를 위한 연회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https://thepacifichotel.co.kr>

02-777-7811

rsvn@thepacifichotel.co.kr